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What is the point of Prayer?

질문: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하셨다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되며, 왜 구태어 귀한 시간을 허비해서 무었을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모르겠는데요-기도해 보겠어요. 하하 농담입니다. 이 질문에 가장 쉬운 답변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쉬지말고 기도하라”). 그런데도 자꾸만 왜 하라고 할까 하는 질문이 일어남으로, 이점에 대하여 약간만 조사해 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에서는 “약간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조사해 놓은 기도에 대한 구절들이 하도 많아서 이 기사에 다 보일수가 없습니다. 이 제목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교육사에서 내놓은 테이프와 CD로 된 *Let Us Pray* 라는 가르침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Brother Andrew 분이 쓰신 *And God Changed His Mind*, 책과 또 John Sanders 분이 쓰신 *The God Who Risks* 라는 책도 추천합니다. 기도에 대한 모든 책들중에, E.M. Bounds 이라는 책이 아주 좋습니다.

비록 사람들 생각에 기도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에게 혹은 하나님과 대화한다”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사람이 전능하신 분과 여러 가지의 동신과 대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 동신이 어떠한 종류들 이라고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왜, 또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기도라 하면 사람들은 먼저 청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그것이, 나에게 무었을 해달라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무었을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크던지 작던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기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6). 요한 일서 5: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었을 구하라고 권고 하시는데 그의 뜻은 우리가 그의 말씀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할 때에 머리말이 “만약 당신의 뜻이라면...” 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성경 말씀에서 알려 줍니다.

칭찬, 찬양, 숭배, 감사드림,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들이 모두 다 다른 식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그저 아무데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무척 좋아 하십니다. 왜요? 그분의 자만심을 쓰다듬기 위해서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권고 하시는 모든 것들은 제일 먼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선하심을 확대 시키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응고(굳세게 해주고) 시키고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그를 의지함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에게 그저 의논하는 것은 어떤가요? 정말 멋진 일이죠.

안내와 방향을(곧 지혜와 지식) 물어보는 것도-다른 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더 세밀히 알고 싶으면 야고보서 1:5절을 보세요.

두덜대는 것은 어떤가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러한 식으로 올라가는 통신이 수두룩 합니다. 다윗은 좋은지 나쁜지 혹은 흥취하든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 하라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18:1절에서는 기도를 강박히, 험차게, 그리고 끈기있게 하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9절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1서 5:14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6절에서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기대를 걸고 감사함으로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7절에서는 끈임없이 기도 하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합해보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분과 항상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기도 할수 있는 한 기도하라고 했을 까요? 여기에대한 기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을 선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택하실 때, (가) 옛날에 옛날에, (나)하나님께서 홀로 계실 때, (다) 위에 말한 것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독립적으로 각자 사람과 함께 역사하실수 있는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동역자-fellowlaborers with God"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셔서 그의 뜻을 이룰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생활이 장난감 인형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줄을 달아서 하나님이 연상 그 줄을 당겨서 연극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쉽게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당신의 장난감 인형이 아니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간섭해서 세상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하실수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그의 천연적 특징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항상 사람을 돕는 일만 하실 것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물위에 범정의 지배권을 주셨고, 아담은 그것을 마귀에게 "넘겨주었으므로"(누가복음4:6), 하나님은 불의한 행위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물며 사탄에게 까지도, 법률상 자기에게 정당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에게 정당한 자세를 줄까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미덕의 믿음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원할수 있는 권리를 주었고, 그럼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서 살리신 분의 능력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자들 에게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 바로 당신이 아닌가요?

당신은 "유명한 레스링-Bigtime Wrestling,"을 좋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팀 레스링 하는 것을 잘 감상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관경이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잘형용해 줍니다. 만약 당신이 두사람 팀 싸움에 당신은 링 안에서 다른 팀 한사람과 싸우고 있다고 합시다. 당신이 그안에서 부활여 제게될 당시에 당신의 팀이 링 밖에서 당신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 손을 대지 않고는 그가 링 안에 들어가서 당신을 도울수 없습니다.

아니, 왜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사람이 그저 링안에 뛰어들어가 다른 팀을 쫓아 쫓아 버릴수 없을까요? 그럴수 없는것은, 그 규칙에 자기편에게 손을 “대지” 않고는 그렇게 할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때 당신편 팀이 링 밖에서 팀을 등지고 서서 구경꾼들에게 자기팀이 승리 할거라고 미리 뽐인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만약 그사람이 좋은 팀이라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자세가 어떠한가요? 아마 그는 그 링 줄 위로 밟고 들어 손을 때칠대로 때쳐서 당신이 그에게 손 댈수 있게 애달 것입니다. 그러나, 대 레스럼 시험에서는 그 링이 커서 아무리 손을 때쳐도 그손이 달수가 없게 되고 당신은 그안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세대에 영적 싸움에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두울수 없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기도의 손을 올리면, 그분들에 손을 항상 “만질수” 있으며, 그분들은 항상 우리에게 유익되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다못해 “그저” 위로와 용기를 주실찌라도 꼭 기도가 상달되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말을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기도가 하나님이 하시기 싫은 것을 해주실수 있게 억지 쓰는 것이 아니라: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붙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좋은 말입니다. 언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창조자와 연결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우리 천부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아마 그래서 빌립보서 4:7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로 기대 하면서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셨나 봐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큰 믿음으로 기도할수 있고, 우리가 그의 목적들로 나란히 기준되어 있는것을 압니다. 전통적 “기도의 손(두 손바닥을 합친모습)”은 하나님과 줄당기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사실, 두손바닥을 합쳐서 내미는 모습은 (단지 수감채우는 것 밖에 받을 수없는 것 같음)내 생각엔 이 모습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생각엔, 기도하는 손은 우리 아버지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는 기대로 손바닥을 벌려서 내 밀어 받을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말과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 아주 인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만 봐도 예수님 손수 이 두 신화의 가면을 벗긴 것을 보게 됨은 주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실때 “뜻이 하늘에서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 하라고 했는 데 만약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 곧 그의 가족이 낙원(Paradise)에서 영원히 사는 날이 반드시 돌아오는데, 거기서 누가 살것이며 그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을 것은 각자가 결정하는데, 이생 사는 동안에 순간 순간 마다 사람이 자유-뜻 안에서 선택하여 만드는 것 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커다란 손가락으로 인형을 놀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으신다고 내가 어떻게 확신 하느냐구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신다면, 내 형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만약 미래를 완전히 정해 노았으면, 기도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진

정한 개인적관계를 선택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그에게 경의를(뜻 돌리킴을) 드립니다.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8장과 32장) 그리고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구약 이 두 대목 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을 보셨으나 뜻을 돌이켜 그들의 기도 에 반응하시는 건본을 볼수 있습니다. 기도가 상태를 바꿉니다 (사실은 기도가 하나님 이 상태를 바꿀 수 있게하는 허락을 줍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다른 결과를 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백성들이 자기와 함께 미래를 형성화 시키는데 초청 하셨습니다.

John Sanders(존 샌더스)분이 쓴 *The God Who Risks-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쓰신다* 라는 책 (페이지 272, 273)에 기록한 한대목을 어떤분이 한 말인데 이전에 가장 꼭 들어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자기의 파트너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는 우리와 사귄(fellowship)을 원하십니다...우리의 간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우리의 문제들을 그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이 개인적, 사랑하는 관계의 원결입니다. 이러한관계는 독재자나 부정조작이 아니고 오직 참석과 협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동역자 (고린도전서 3:9)...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과제를 교환 하시기 원하시고 대화의 기원을 만들어 관계맺는데 중요한 요소로 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미래의 길들을 열어 놓으시고, 어느길을 택할까 하는 결정에 자기와 함께 참석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질수 있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에 따라 우리소원을 돌아보실수 있게 하나님을 설득시킬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진실로 계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설득시켜서 우리의 생각이 예초에 부족하게 행할 길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계속 추적하십니다. 이 경우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이 세상에서 역사 하실수 있게 하는 대화의 자원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도도 하나님께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창조하시게 합니다. 대화의 기도가 양면에 영향을 주고 상태를 바꿔게 하며, 기도 전의 일보다 달라지게 만듭니다...우리가 간구하지 안했으면 하나님께서 하실수 없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우리 천부께서 나의 마음을 자기와 서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내 기도가 역사의 장면을 바꿀수 있다는 것을 알고보니, 나에게 기도하고 싶게 하는 동기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종종 생각나게 할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해야되구 말구요! 왜 해야 된대구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기도 하라구요? 열렬하게! 언제 기도 하라구요? 아무때고! 어디서 기도 하라구요? 어디에서든지 아무데서라도!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Article by: Truth or Tradition.com, 번역: 김영순, 편집: 김정숙